

## 중문마을 民俗과 信仰(1)

### - 중문·색달·대포리 -

文 武 兼\*

#### I. 머릿글

중문마을은 당본풀이(堂神話)에 의하면 한라산 서남어깨를 타고 내려온 서귀포시의 서쪽 지경을 말한다. 중문마을은 11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서귀포시에 속한다.

한 마을의 특징을 결정짓는 데는 생활권과 신앙권 그리고 통혼권과 같은 관습상의 소통구조를 갖는다. 같은 지역의 이웃하는 마을 사이에도 서로 대립·갈등하는 마을과 서로 융화·화합하는 마을이 있다. 이러한 이웃 마을 간의 유사성과 대립성은 신앙과 민속의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문마을은 동일한 생활문화권이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각 마을마다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융화하는 마을군으로 신앙권·생활권·통혼권 등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마을이 한라산으로부터 해안으로 내려가면서 산간-중산간-해촌을 이루고, 생활권이 뚜렷이 구분되어, 사냥을 하며 火田을 일구는 半農半狩獵의 山村, 마소를 기르며 농사를 짓는 半農半牧畜의 中山村,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농사를 하며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거나 고기를 잡고 사는 半農半漁業의 海村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중문마을은 이러한 구분이 뚜렷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마을이 해안에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중산간 지경에 그들의 마소를 기르는 마을목장과 공동묘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산간 지경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도 그들이 마을 바다를 소유하고 있어 생활권을 산간-중산간-해촌으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물론 廻水里와 같이 마을 바다가 전혀 없는 중산간 마을이 있고, 마을 바다가 있으며, 100호에 70가호가 물질을 하는 穡達里와 같은 중산간 마을이 있다. 中文里의 屋川洞(속칭 배릿내)은 10여호 정도 사는 어촌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중문관광단지가 생기면서 사라진 마을이다.

예로부터 중문마을은 水源이 풍부하여 논농사를 많이 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감귤과 화훼로 바뀌었고,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에 따른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볼 때, 중문마을은 半農半漁業의 생산형태를 지닌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앙면에서 볼 때, 漢拏山系의 山神으로 수렵·목축을 관장하는 男神과 요왕또라는 海神으로 어부 해녀를 관장하는 女神이 한 마을에 좌정하고 있으며, 마을의 堂神은 마을 사람들의 생산 활동, 병이나 위험한 사고나 사건들, 삶과 죽음들, 즉 “나는 날 생산 초지, 죽는날 물고, 호적, 장적 초지”하여 마을 사람들을 수호·관장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산간-중산간 마을이 班村임을 주장하고, 어촌 마을이 常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촌이든 중산촌이든 유림을 중심으로 반촌이 형성되어 있고, 반촌이기 때문에 대정향교에 다니는 유림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많아 마을에서 경민장(지금의 里長)을 많이 배출하였고, 때문에 인근 마을 중에 가장 세도를 부리는 마을이었다든가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다. 또 마을마다 20여년 전까지 마을 하남<sup>1)</sup>이 있었고, 반상의 구분이 뚜렷했다

1) 마을 안에 잔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마을 소사’라고 불렀다.

고 한다. 마을 안에 반상의 계급이 상존했던 경우는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마을 포제를 지내는 데 있어 제관선출에서 드러나는데 아무리 연장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낮으면 제관으로 뽑힐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신분과 계급에 대한 유습이 몇 해 전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은 중문 마을의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특징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지 않으며 20여년 전에 없어졌다. 중문관광단지가 형성되고 근대화와 개발바람이 정면으로 불어닥친 곳이어서 그런지 제주도 어느 지역보다 그런 면에서 전통 보수적인 유림촌에서 새로운 관광도시로 급변한 마을이 된 것이다. 때문에 마을과 마을의 우열의 차등을 매기려는 데서 오는 갈등은 관습상 현존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큰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마을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우월감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제 중문마을은 대규모 밀감재배단지가 되었고, 어느 마을이나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던 벼농사를 그만두고, 그곳에 보다 더 수익성이 있다는 화훼를 재배하고 밀감밭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다. 또 70년대부터 관광단지로 지정 급속히 개발바람이 불면서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근대 도시로 부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의 영향도 커서, 새마을 운동 당시 의례간 소화니 미신타파니 하는 바람에 마을의 전통적인 인습은 허물어지고 전통 문화에 대한 보존이 소홀해져서 중문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마을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 마을이 반농·반어업의 생산형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권으로서 중문마을이 대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과 마을의 차이는 오히려 신앙권이나 통혼권에서 더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문 마을의 생활민속과 신앙의례를 살펴나가기로 한다. 지금까지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 강정옥 (여, 82세)..... 색달리
- 김인자 (여, 50세)..... 색달리
- 김춘일 (여, 70세)..... 색달리

- 허신권 (여, 86세)..... 색달리
- 김명선 (여,  세)..... 예래리
- 고옥순 (여, 63세)..... 중문리
- 강두방 (남, 62세)..... 대포리
- 이상봉 (남, 72세)..... 대포리
- 김화홍 (여, 78세)..... 대포리
- 황보옥 (여, 95세)..... 대포리

## II. 생활과 민속

### 1. 마을개관

#### (1) 인구이동

「제주읍지」<sup>2)</sup>大靜縣誌에 의하면, 그 당시의 중문마을의 인구와 호수에 대

〈표1〉 정조 때의 중문마을 인구 및 호수 (1780-1789년 사이)

마을명	인구			호수
	남	여	계	
상예래리(上猓來里)	130	170	300	60
하예래리(下猓來里)	189	250	439	82
성산리(城山里)	90	122	212	47
색달리(塞達里)	85	74	159	37
중문리(中文里)	303	431	734	154
대포리(大浦里)	105	193	298	75
하원리(下院里)	81	131	212	44
석송리(石宋里)	90	134	224	51
강정리(江汀里)	199	257	456	96

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읍지」六 濟州道, (아세아문화사, 1983), pp. 213-214.  
「읍지」는 조선 正祖 연간인 1780년부터 1789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 기록이 보인다.

위의 표를 보면, 200여년 전의 중문마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 그 당시의 지명이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돌승이-석송리’로 적었던 것이 ‘돌승이-도순리’로 변화였고, ‘성산리’는 古地圖<sup>3)</sup>에 보면 상예래리 위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금의 상예리가 상예래리와 성산리로 나뉘어 있었던 것 같다.

1930년 발간된 「濟州島便覽」 左面(지금의 중문면) 사무소項에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sup>4)</sup>

### 23. 左面事務所

本面은 濟州島 左面 中文里에 在하니 所管里洞 十一個里요 面의 面積이 約九萬里인 바 廣무는 東西가 三里二十八町 南北이 四里面內巡里程七里三十四町이니, 濟州城內를 距하기 出路로 約八十里이다.

#### 1. 沿革

本面은 元大靜郡 三面의 一로써 郡의 左部에 位置함으로 左面이라 稱하다. 面에는 風憲을 置하였더니 明治四十年 分面の 時 中文里 以東을 東左面이라 以西를 西左面이라 稱하여 風憲을 面長이라 改稱하여 自宅에서 面事務所을 取扱하다가 明治四十二年 更히 合面하여 東左面西左面을 左面이라 稱하고 同時에 面事務所을 中文里에 置하고 大正三年 三月 郡廢合에 因하여 島廳直轄에 屬하고 大正六年十月 面制實施가 되다.

#### 2. 地勢

本面은 東西三里二十八町 南北四里인 바 北漢擎山을 負하여 寒風을 遮하고 比較的 地勢가 急斜하여 山전으로 西里의 間隔으로 海에 臨하다. 河川은 道順川 中文里 天帝川이 있고 下流에는 常時 流水가 豐足하여 灌溉에

3) 규장각도서 10482, 「제주삼읍지도」 참조.

4) 고정종; 「제주도편람」 (영주서관, 1930), pp. 84-85.

利用함이 多大하다.

3. 인구(1930년)

마을명	호수	인구	마을명	호수	인구
江汀里	430	1,468	大浦里	330	1,229
道順里	200	783	中文里	441	1,732
瀛南里	34	157	檣達里	182	679
下源里	276	1,170	上猊里	355	1,188
月坪里	138	446	下猊里	291	1,113
廻水里	116	482	計	2,802	10,468

지금 중문마을은 서귀포시로 편입되면서 11개 마을이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의 4개동으로 바뀌었다.

〈표2〉 중문마을 동별인구 (1990년 잠정수치)

마을명	가구수	인구수		
		합계	남자	여자
대륜동	1,872	7,451	3,694	3,757
대천동	1,516	5,698	2,822	2,876
중문동	2,070	8,785	4,446	4,339
예래동	1,083	4,214	2,099	2,115

(2) 신앙권과 통혼권

중문마을에서 색달·중문·대포리는 모두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가 없어진 마을이다.

포제는 선달의 포제 향회에서 부터 마을의 회의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원로회의면서 자연공동체의 정치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당굿 처럼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등을 비는 의례인 것이다. 그러나 포

제는 없어지고 그 대신 마을 공동묘지의 토신제를 정초에 공동으로 행하고 있다.

포제가 없어진 것이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영향이라면, 위의 다섯 인근 부락들은 세태의 변화에 비슷하게 대처해 왔고, 마을제에 대한 의식이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 각 마을에 치러지는 토신제는 마을에 상이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장지에 가서 하는 산제 또는 토신제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정초 或丁或亥日에 부락제로 치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 묘지를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상의 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포제와 같은 마을제의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중심으로 볼 때, 유교적 관습의 유사성을 보이는 동일 신앙권이다. 그러나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당시앙을 중심으로 신앙권을 나눈다면,

- ① 색달 - 중문(성천동)권
- ② 중문 - 회수 - 대포권
- ③ 월평 - 하원권

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①의 색달·중문권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색달리와 중문리의男神은 모두 한라산 서남 어깨 '소뫼뎨밭'에서 솟아난 9형제 중의 하나로 다섯째가 '중문이하리산', 여섯째가 '색달이하리산'이라는 漢拏山系 山神이다. 그리고 女神을 보면, 색달리는 '전신당 요왕또' 중문리는 '불목당 요왕또'로 모두 '요왕국(龍王國) 말갯딸애기' 즉 龍王國의 末女라는 海神이다.

濟州島의 漢拏山系 山神은 산간마을에서는 수렵·목축의 신으로 중산간마을로 내려오면 목축농경의 신으로 바뀌면서 마을의 설촌과 관련되어 산혈, 물혈을 짚고 좌정처를 찾는 풍수신적 능력을 발휘하며, 바람을 다스리고 잠재우는 風雨神(일문관 비름웃도)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때문에 제주도의 山神들은 수렵·목축신, 풍수신, 바람의 신, 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색

달-중문권의 山神은 목축·농경의 신이면서 風水神(地官)적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 堂神이 마을의 설촌조상이라면 마을을 형성할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에 좌정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선관도스님(仙官道士)입니까?」 물으니,

「나는 할로영주삼신산(漢拏瀛洲三神山) 셋어깨 소뿔뿔맞디서 솟어나시니, 갈질을, 좌기(坐起)홀 디 몰라서 여기 성국(形局)이 조와 좌기허였노라」

삼위가 말을 여쭙오웨.

「우리 마을 토지관(土地官)이 없으니 우리 마을 토지관으로 좌기허기 어저허오리까?」

그 본향(本鄉神)이 말씀허웨

「그러면 나가 여기 불좌와시니, 그 마을 토지관으로 들어갈 테니 남(木)도 초지 도입실네 물도 초지 도입실네, 호적(戶籍) 장적(帳籍) 초지허여서 물썰<sup>5)</sup>을 잡겠다.」

물썰을 잡는다.

「고여물은 먹는 물을 잡고, 생숫물은 양젓물을 잡고 말물은 배릿물을 잡겠다.」

하고 보니, 산썰 물썰 잡고 호적(戶籍) 초지허시니,<sup>6)</sup>

위의 인용에서 토지관은 마을의 수호신을 뜻하며, 땅, 나무, 물을 차지하고 호적과 장적을 차지한 본향당신이며, ‘산썰(山穴)’, ‘물썰(水穴)’을 쥐고 좌정처를 정한 설촌조상신이며 풍수신(地官)이다. 이러한 산신은 본풀이를 보면, 肉食의 수렵신적 성격보다는 米食의 농경신적 성격이 강하며, 아기를 잉태한 여신과 별거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중문리 산신의 妻神 ‘진궁하늘

5) 물위 혈, 風水說의 水脈

6)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p. 751. 「색달본향풀이」 참조



진궁부인'은 아기를 잉태할 때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따로 좌정하며, 색달리 산신의 처신 전신당 요왕또는 돼지고기를 받아먹는 육식신이며 따로 좌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신앙권의 형성은 생업의 공통성에도 찾을 수 있는데, 중문리 성천동(베릿내)은 10여호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어촌(지금은 없어진 마을)이며, 색달리는 6, 70%가 해녀이다. 따라서 이 두 마을의 어부·해녀들은 '베릿내'에 있는 두 개의 해신당, 개당과 전신당<sup>7)</sup>에 다닌다. 마을은 다르지만, 생산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②에서 처럼 신앙권을 중문-회수-대포권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회수리에 있는 동숫물에는 일뤼당과 여드렛당 두 개가 있었으며, 이 당을 '동숫물당'이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때문에 회수리 사람들 일부는 당제일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중문리 불목당에 다니기도 한다. 왜냐하면, '동숫물당'은 중문리의 불목당과 동의본향 여드렛당을 중산하여 모셨기 때문이다.<sup>8)</sup>

대포리도 마찬가지다. 대포리 '콧등이마루 옷당'의 당신은 '불목당 요왕또'로 역시 불목당에서 중산해 온 당이다. 그러므로 동일 신앙권이라 할 수 있겠고, 대포리에 사는 중문리 출신 여인들이 불목당이 너무 멀어 당을 새로 설립했다면, 이들은 분명 중문리에서 대포리나 회수리로 시집 온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신앙권은 곧 통혼권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 신앙권이라는 말은 마을과 마을이 결혼을 꺼리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래 통혼권이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마을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그 집안은 잘 안된다"는 막연한 관습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

7) 전신당은 중문관광단지가 형성되면서 없어지고, 당은 '베릿내' 개당 좌측으로 옮겼다.

8) '중산하다'는 말은 '가지 가르다'는 말과 같이 쓰인다. 시집을 가거나 고향을 떠나 살기 때문에, 부모님 때부터 다니던 본향당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을 때, 본향당에 있는 물색이나 돌담 등을 신체로 모시고 와서 새로 당을 설립하는 경우, 이 당을 '중산해 온 당'이라고 한다.

은 신앙, 신분, 어촌과 산촌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문마을은 특히 통혼권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촌로들은 어느 마을하고 사돈을 맺으면 잘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중문 마을에는 어느 마을이나 동의본향을 모신 일뤼당(웃당)과 여드렛당이 있다.

원래 토산당은 시집을 갈 때 중산하여 모시고 가는 蛇神堂이기 때문에 산북지방에서는 산남지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마을의 본향신 이외에 또 하나의 당신을 더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중문마을이 어느 마을이나 동의본향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동일 통혼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③의 경우처럼 월평-하원권을 동일 신앙권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월평바다 하원바다가 있지만, 어부나 잠수가 극히 적고, 대부분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며, 신앙면에서도 동의본향인 여드렛당과 마을본향인 일뤼당을 신앙하고 있는 점이다. 해신당을 모시는 경우가 적고, 거친 바다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순하다, 어질다'고 생각하는 점, 유림촌 반촌이라는 궁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사돈관계를 맺는 점 등이다.

통혼권은 里內는 물론, 인근부락, 안덕, 서귀 등지에 주로 분포를 보이는데 옛날에 中文里는 兩村이라 하여 양촌인 대포·하원과 사돈관계를 맺지만 색달·도순은 武村이라 하여 통혼이 드물었다.<sup>9)</sup>

이와같이 신앙권이다 통혼권이다 하고 나누는 것은 마을 간의 갈등을 억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억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구분은 한 마을의 특징과 마을과 마을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문마을은 다른 읍면 단위의 타지역과 다른 특징을 공동으로 가지고

9) 세대 국어국문과, 「중문리 학술조사」 『국문학보』 제7집, (1975), p. 84.

있으면서, 산촌·중산촌·해촌에 따라 각기 마을마다 특수한 생활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문마을 민속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제주민속을 문헌을 통하여 정리하고, 현재 남아있는 중문마을의 민속들은 증언을 통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 2. 中文·大浦·穡達里의 生活과 民俗

### (1) 세시풍속과 가정신앙

#### 正月

##### 〈정월명절(설날)〉

동국세시기 正月 元旦條에 보면, 「서울 풍속에 이날 사당에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茶禮)라 한다. 남녀 어린이들이 모두 새옷을 입는 것을 세장(歲粧)이라 하고, 집안 어른들을 찾아 뵈는 것을 세배(歲拜)라 한다. 이날 시 절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세찬(歲饌)이라 하고, 이때의 술을 세주(歲酒)라 한다… 濟州 風俗에 대체로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나무·돌 등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의 사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巫覡)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儼戲)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돈을 내놓으며 굿을 한다. 이것을 화반(花盤)<sup>10)</sup>이라고 한다」<sup>11)</sup>고 하였다. 제주도에는 정월에 神에게 새배를 하는 당굿(신과세제)를 하며, ‘굿돌이’, 즉 걸궁을 한다는 것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10) 현용준; 「花盤考」, 『한국민속학』 9, (민속학회, 1976). 여기에서 그는 ‘花盤’을 ‘굿돌이’라 풀이하여, 즉 ‘걸궁’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다.

11) 홍석모의 저(이석호 역), 『東國歲時記』의 『한국명저대진집』, (대양서적, 1980). pp. 25 - 35.

… 京都俗 歲謁家廟 行祭 曰茶禮 男女年少卑幼者 皆着新衣曰歲粧 訪族戚長老曰歲拜 饋以時食 曰歲饌 酒曰歲酒… 濟州俗 凡於山藪川池邱墳衍木石 具設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擊神籙 作儼戲 錚鼓前導出入闔里 民人爭損財錢以賽神 名曰花盤(見與地勝覽)

〈액막이·방쉬<sup>12)</sup>·도채비방쉬〉

정월 대보름의 민속에는 ‘떡점’이라는 게 있었다. 보름 전 날, 새 날과 묵은 날 사이에 식구 수대로 떡을 찌는데 총마다 식구의 이름을 써 놓는다. 떡을 다 찌고 나면, 그 해에 액운이 있는 아이 이름이 있는 층은 익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액운을 막기 위하여, 심방을 청하여 액막이를 하거나, 짚으로 인형으로 만들어 삼거리에 나가 던져 액을 막는데 이를 ‘도채비방쉬’라 한다.

정월 대보름날은 무신 거 해나지 않겠는가?

무사, 재수 굿인 아이덜 방쉬. 대보름날 내가 재수 굿다 흐며는 짚으로 맨 들아그네 세커리에. 대보름날은 흐는 사름들은 떡도 처그네 떡 그루 뽀사 당 새 날과 묵은 날 새에 떡을 밤의, 혼 놈 적시 혼 적씩 놓주. 요건 아무 아의 적시, 요건 아무 아의 적시, 경행 흐문 그 굿일 사름은 떡이 그 가운데 익지 안 흰다 흐여. 계난 경훈당 해도. (아, 계난 떡점이네 예? 떡 점 이주.)

시루에 영 바그네 요건 셋놈 적시, 요건 큰놈 적시 흐며는 중간 사이 사이가 요새는 다 익어볼 거 아니라. 그 당시는 안 익어. 아이구 셋놈은 금년 운수가 나쁘다 흐며는 도채비 방쉬를 해주. 옛날은 경 훈당 해도, 운 나쁜 아이는 도채비 방쉬를 했다? 방쉬하곡, 정월 보름날 되며는 심방 청행 액막이도 해 주고.<sup>13)</sup>

〈뱃고사〉

뱃고사는 음력 정월 초하루 또는 보름날 한다. 뱃고사를 하기 전에 ‘개당’이라고 하는 ‘船王堂(漁夫堂)’에 먼저 가서 당제를 지내고 나서 배로 가서 이물·고물·기관 등에 제물을 차려 ‘告祀’를 지내는 것이다.

12) ‘방쉬’는 防邪, 즉 厄이나 不淨을 막는 것을 뜻한다.

13)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벉코스는 정월에 택일해 가지고 하는데, 먼저 당에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벉코스를 합니다. 것도 시간이 이십내다. 날 받으민 가인벨로 합니다. 그 땐, 동사 날짜해 그네, 동사날이 맞이민, 오닐 즈락이 만일 아흠 시에 제 지내라, 열두 시른 열두 시에 제 지내라 하면 당에부터 문여 다녀놓고, 배에 강 춤 고스지내는 접주. 당에는 매 혼 그릇, 배에는 것도 다 틀립니다. 건디, 보통 세 그릇이우다. 세 그릇부터 다섯 그릇까지 올립니다. 왜냐면 기관방 하나, 그물에도 하나 올리꼭. 선왕, 요왕, 기관방, 또 치, 그렇게 올리는디, 지금은 한장이 어시니, 한장은 가운데 중심입주. 이물에는 이물스공, 한장에는 한스공, 고물에는 고물스공이엔 했는디, 이전의는 한사공이엔 하다가 기관방이 돼부니까 기관스공이라 하는 접주.<sup>14)</sup>

#### 〈문전제(장구코스)〉

신년을 맞은 집안의 富神·門前神에게 드리는 告祀로 ‘문전코스’ 또는 ‘올래코스’라고도 한다. 대포리의 경우는 ‘장구코스’라고 했다. 아마 심방이 장고를 차고 앉아서 요령을 혼들며 앉은제로 하기 때문에 ‘장구코스’라 하는 것 같다. 어느 마을이나 문전제를 하지만, 대포리는 한 해 문전제를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유교식으로 토신제를 번갈아 지낸다. 집안에서 ‘산신맹감’을 조상으로 모시는 경우, 산에가서 정결한 곳에서 심방을 데리고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산신코스〉 또는 〈산신맹감〉이라 한다.

원래 ‘맹감코스’는 집안에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고사다. 〈문전철갈이〉나 〈칠성제〉 그리고 〈산신맹감〉은 집안에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을 받아 한꺼번에 한다. 집안에 門前·七星·山神을 다 위하는 경우는, 먼저 날을 받아 심방을 데리고 산에 가서 정결한 곳을 택하여 〈산신코스〉를 하고 와서, 〈문전코스〉, 〈조왕코스〉를 하고, 안칠성과 밧칠성을 위한 〈칠성코스〉를 한 뒤, 칠성놀을 거두어 기와뚜껑을 열고 그 속에 새해의 햅곡식으로 갈아넣은 다음, 기와를 덮고 주쟁이를 다시 씌워 넣는다. 묵

14) 대포리 강두방(남, 62세)

은 해의 곡식을 새해의 햅곡으로 바꾸어 넣는 것이다. 이러한 고사는 집안에서 모시는 富神들을 위한 新年過歲祭로 〈문전철같이〉라 한다. 특히 〈멧감코스〉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즈음은 하는 집이 드물다. 오히려 절에가서 산신불공, 요왕불공, 칠성불공 등을 드리는 집안이 점차 많아 가는 추세이다.

정월달에 집안에서 문전제는 안 합니다?

옛날은 경 드러 해어도 이젠 경 안 하여. 그런 걸 해어 저? 옛날은 경 하근 거 정월나민 혼 해엔 '장구코스' 하여 춤, 세경이여 무신 거여 본풀이 하여 '장구코스' 하여 코솔 넘어가고, 뒤엔 토신제엔 하여그네 큰 어룬 빌어그네 제관빌어 춤 정성 하여 뒤에 자리 아래 대문 뒤트레 땅드레 체얌은 별경혼 춘약(진흙)하여다놓곡, 버금은 모살 하여 그네 미녕드리 아무 거라도 써나지 안 혼 거 것거진 거, 요새 미녕이 어디서? 그자 춤 배라도 하고 토신제 하는데, 옛날은 토신제 하여 하여도 독하여 산 채 독들고 경 해낫주마는.<sup>15)</sup>

심방데려당 정월에 하는 거 뭐 잇수가?

그건 '장구코스'엔 하여주게. 두 해에 혼 번 코스엔 하여. 액막이도 궂디 아기들이여 보글보글 살젠하민 그 해엔 ㄱ만이 앓아지리엔 이제 토신제 안 혼 해엔 액막이도 하여, 고싸 곁은 뒤에 토신제도 하여, 안에 칠성도 밥거려놓곡 식게 멧질 때도 밥거려놓곡. 장토제 허젠하민 우린 상두동산 가그네 초감제 행 와그네 집에서 해낫주게. 그거사 집집마다 혼질 안 하여도 고싸 뒤에 곁은 코솔 허젠하민 드르에 가그네 제 지내영 오주기. 상뿃동산이나 어디 궁터 좋은 덜로 가그네 매도 따로 하여 제물도 따로 하여, 해낫주마는 이젠 그런 거 안 합니다.<sup>16)</sup>

정월에 집안에서는 문전제, 철같이, 멧감코스를 하는 집이 잇수다. 특히

15)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16)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멥감코스는 3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은 하는 데가 드뭅니다. 가끔 한 두 집이고, 심방을 빌어당 하는 디도 있고, 스님을 빌어 하는 디도 잇수다. 건 자기만씩인데, 대부분 심방을 빌어당 합니다. 정월에 주로 하고, 정월에 못하면 3월에도 합니다. 멥감코스를 하는 디는 비용이 약 20만원 정도 걸립니다. 뒷할망을 모시는 집은 요새는 거의 드물주. 동호네 집만 지금도 모시는데, 이젠 다들 절간 같은 데 강 모셔댄 합니다.

‘멥감코스’ 지날 때는 심방이 오늘 오면, 보시 사발에 떡 쳐 놓고, 또 둘래떡하고, 칼래석이엔 잇수다. 떡 그치는 거, 칼래석하고, 손메석이엔 혼곤떡 우트레 올려놓고, 떡을 몬 맨드라 노며는 심방을 청하영 드르오로 강, 집의도 다 출령 놔두고, 초감제 해 가지고, 우리도 옛날엔 해나도 신식으로, 들에 깨끗한 디 가그네 멥감을 빌어 낡, 옛날 소사만인가 인사만 인가가 오랫동안 살아난 역스를 말하고 심방들이 이디도 좋게 해줍센 그제 지나그네, 멀리 강 제 버려뒀, 한참 잇당 다시 음복홀 거 아니우파? 조상님이 잡술 만 하민 땡글 땡글 요랑 흔들멍 빌어. 빌어 그디서 몬 캐우렁 두고 집으로 오라그네, 간 드르로 간 빌어 오랏수다 하명 문전에도 빌고, 안칠성에도 빌고, 조왕에도 빌고, 바칠성에도 빌고, 경하는 거 아니파. 바칠성은 집마다 어십니다. 잇는 집인 옛날엔 칠성을 늘 늘영 해놔주마는 그거는 혼 부락에 몇 집이 어서. 옛날 부모 조상이 해나민 혼다고 해도. 예, 고팡칠성은 집집마다 이십주. 요새 신식으로 안 해도. 칠성부군이라고. 칠성에 제사 때는 도에 밥 혼 사발 걸여 놔그네, 무남제 일곱개 꽃우앙 새섭 그창 칠성이엔 하고, 조왕에는 새섭도 조왕할망 세개 꽃우앙 꿔우서 두고 경혼니께.

토신젠 옛날은 해나도, 요즈음은 다 절간으로덜 하고, 믿는 사람은 예비당으로강 믿고, 멥감코스 하는 사람도 벨로 어서미씀.<sup>17)</sup>

17) 색달리 강정옥(여, 82세), 김인자(여, 50세)

二月

〈영등굿·해신제·요왕제〉

음력 2월 초하루는 영등할망이 오는 날이니, 따뜻하면 옷입은 영등, 추우면 벗은 영등,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할망이라 한다. 강남천자국에서 바다 건너 제주도에 들어오는 이 영등신은 '바람의 神'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한라산을 돌며 꽃씨를 뿌리고, 세경 너븐드르(들판)에 오곡의 씨를 뿌리고, 바닷가로 돌면서 우무·전복·편포·소라·해삼 등 해초의 씨를 뿌리고 2월 15일 제주를 떠나는 신이다. 이 신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초하루부터 제주를 떠나는 15일까지 제주도 각 마을에서는 굿을 하는데, 이 굿을 영등굿이라 한다. 대포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어부·해녀 합동으로 영등제를 지냈다. 과거에는 어촌계굿, 해녀굿이라 하면서 크게 했었는데, 지금은 절에서 간단하게 치른다.

여기는 어부 해녀가 반 반이거든. 해신제는 2년에 한 번 어부하고 해녀가 합동으로 '영등제'라고 해서, 2월돌 나민 흠니다. 근간은 한 오륙 년 안 했수다. (무사 재작년에 안했수가?) 그전 불공. 그전 절간에서 한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했주.

과거에는 문딱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얼마라도 모여서 굿을 했거든. 심방을 빌어다가. 어부문 어부 해녀문 해녀 뜻있는 사람들 모아서 했주게. 그땐 어촌계굿, 해녀굿 한명 큰굿해났주. 대폰 어부들이 많지 안 하니 어촌계 명의로 해났주게.<sup>18)</sup>

三月

〈한식명절〉

한식날은 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모든 제물은 전날 밤에 준비해 두고 메와 갱도 식힌 다음에 茶禮를 지내는데 음복이나 또는 식사까지도

18) 대포리 강두방(남, 62세)



찬것을 먹는다. 현인 介子推가 산에서 불에 타 죽었으므로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이다. 이날은 省墓를 하며, 산소도 보수 할 곳이 있으면 이 날에 한다.

〈고사리 꺾기〉

3월 장마비가 온 뒤, 한라산 중턱 여기 저기에 고사리가 한창이다. 고사리는 제사용으로 사용되어 집집마다 제사 때 쓸 고사리를 캐러 산으로 가는데, 요즘은 요리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고사리를 캐는 할머니들이 많이 보인다.

고사리 꺾으러 뭇 월 달에 갑니까?

삼월 이월 나면 꺾어져. 고사리가 많은 딴 화전에 많주. 이디 안 흥영 저 화전에 가사 고사리 꺾어. 옛날 고사리 꺾은 건 집의 제사행 먹겐 꺾었주. 이제라도 고사리 사당 몬 행서. 흥 술 꺾은 것에 언마씩 해영. 드룻마 농도 해났주. 물룻도 파나고, 툷도 숲안 먹어나고, 물룻도 숲안 먹어나고, 아이구 큰 풍대에 노곳으로 빙빙 얹영 흥해연 무짜 선금 못 바래게 얹영 통에 후질허는 거 그추룩 통에 앓정 이틀 밤 이틀 숲아그네 물룻먹연.<sup>19)</sup>

四月

〈초파일〉

각 사찰에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 등을 달고 독경 불공을 한다. 독실한 신자들은 초파일 전날부터 절에가서 불공을 드리고 수없이 절을 한다. 중문리 일대 불교 신자가 50%, 기독교 신자는 40%, 비신자는 10% 정도가 될 것이라 짐작하는 이도 있다.

4월 초파일에는 아기들 머리를 깎아 준다. 특히 아기의 배안의 머리는 집에서라도 이날에는 다 깎아준다. 그래야 머리칼이 검어지고, 잘 자란다고

19)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한다. 제대로 하자면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가위로 깎아받는다. 옛날에는 대나무에 끼운 무쇠 면도칼로 깨끗이 깎았다고 한다.

## 五月

### 〈단오날 약초캐기〉

‘端午名節’을 지내는 가문이 지금은 많이 줄었으나 그래도 단오명절은 설과 추석과 더불어 3대 명절 중의 하나다. 시기적으로 보리수확이 닳친 때라, 여느 때의 명절 보다도 분주한 명절이다. 조상들을 모셔서 차례를 지내는 이외에, 이 날은 솔봉, 땃순, 검은콩, 보리골, 검은 쇠똥 등을 모아 두었다가 약으로 고아 먹는 습속이 있었고, 여자들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여러 약초를 캐어 말린다. 주로 집 주변에 흔한 쑥과 익모초, 인동 등 백가지 약초를 캐어 ‘노람지 에리듯’ 엮어 처마나 외양간에 매달아 말린다. 이렇게 말린 약은 집안에 임신부가 해산했을 때 요긴하게 쓸 뿐만 아니라 백중날 걸보리로 엮기름을 놔 말렸다가 첫달 첫 날일에 엮을 고아 먹으면, 만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東國歲時記에 보면, 단오날에 「남녀 어린이들이 창포탕(菖蒲湯)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는다. 또 창포의 뿌리를 깎아 비너를 만들되 혹 수(壽)자나 복(福)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두루 머리에 꽂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액(災厄)을 물리친다. 이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한다」고 하였고, 歲時雜記에 「단오에 창포와 쑥을 다듬어 작은 인형이나 혹 호로(葫蘆)의 모양을 만들어 차는 것을 액을 물리치는 것」이라 했다. 지금 풍속에 창포로 목욕하고 뿌리를 머리에 꽂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 六月

### 〈독잡아먹는 날〉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이 되면, 제주도민들은 한참 닭을 잡아먹기에 바빠지는 풍속이 성행한다. 이날 잡아먹는 닭은 이른 봄에 간 병아리를 마당이

나 우영에 풀어서 기른다. 유월 스무날 쯤 되면 중닭으로 자라는데, 한 집에 두어 마리를 잡는게 보통이다. 닭에 마늘을 놔 쌀죽을 함께 끓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다. 환자가 있는 집에는 마늘 외에 다른 몸보신되는 약재를 첨가하기도 한다. 특히 닭 중에도 烏骨鷄(=발과 온몸의 살색이 검은 닭)는 약효가 더 있다하여 허약한 사람일수록 약닭으로 사다 잡아먹는다. 주로 중병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은 이 烏骨鷄를 잡아 콤대산이(마늘) 한 보시에 수운과 칠낭(웃칠나무) 다소를 넣어 실로 꿰매고 고아 먹는다. 이때 그 칠이 몸에 오르지 않으면 보기(補氣)가 되어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닭을 잡아 먹일 경우는 닭 속에 어영뒤낭(앵두나무)을 다소 잘라놓고, 황토 물과 쌀 한 보시를 넣어 실로 꿰매고 고아서 먹으면 회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인병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은 황계(새빨간 수탉)를 잡아서 그 속에 콤대산이 한줌, 쌀 한줌, 백토란과 지네를 놓아 다려 먹으면 보기(補氣)가 된다고 한다. 아무튼 유월 스무날의 닭잡아 먹으면 만병통치라 하거니와 여자는 반드시 수탉을 먹어야 하고 남자는 암탉을 먹어야 더욱 그 효과를 본다고 한다.<sup>20)</sup>

유월 독잡아먹는 날 있잔허우짜?

유월 스무날. 정월나민 정월 빙애기 허여그네, 우리 씨아바님네 허젠허민 이제하영 미쉬덜 허민, 미쉬 백션해도 독 백션 못흐다는 게, 자신 이서, 무사 영 독을 하영 질뵤서. 유월 스무날인디 양, 큰놈도 하나주라, 작은놈도 하나주라, 아오도 하나주라, 허나씩 잡앙 솟에 디리청 솟앙 사발 안트레 들게 허나씩 먹고. 아무 것도 놓지 안허여.

옛날은 도사기도 허 해 내내 길러사 허 날 지나민 도사기도 풀아보지 안허곡 서녀의 알녀의 아덜들 도새기 풀민 오죽 부재될꺼라. 도새기 풀앙 쓰민 오죽 부재될 꺼라. 우리 아바님의 곤는 애기주. 난 다섯 애기 나도록

20) 진성기, 앞의 책, pp. 217-220.

씨아방이영 혼디 살아났주. 도사기도 질루당 혼 해 지나민 아으들고라 잡으라 잡으라 경해영. 아으덜 혼 각씩 쥐동 나머진 숲암 먹고.<sup>21)</sup>

배 아픈 때에는 오계독(烏骨鷄)을 잡아먹엉 다음 유월 스무날 깎지 아니 잡아먹엉 동드레 돌아 상 해 돌아 올 때, 절 식번 흥곡, 경 행 그걸 먹으면 배 아픈 것이 게우리병<sup>22)</sup>이 엇어진덴. 우리도 그전 해 봤수다. 어릴 때. 대산이(콤포대산이)도 요즈음이나 노왓주. 그때는 독잡앙 먹엉 뒷해 되도록 계란도 먹지 안 해야 혼다. 삼년 동안 경한 난 효과가 십데다.<sup>23)</sup>

〈밭볼리는 코스〉

조의 파종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일 안에 파종한다. 조는 퍼석진듯한 ‘튼땅’에 잘 되는 곡물이다. 때문에 마소의 밭을 빌려 잘 밟아줄 필요가 있다. 이를 ‘밭볼림’이라 하는데, 이 때는 밭볼리는 장남(테우리)들을 잘 대접하며, 차려간 제물을 놓고 농경신 ‘제석할망’을 위한 ‘밭볼리는 고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밭볼리기 전의 하는 거. 제석할망코스 옛날엔 했젠해도 이젠 거 잘 안 홉네다.

조 볼리기 전에 코스 하는 것도 제석할망 적시, 밤 행 강 밭디 가민 캐우리는거 혼 가지로 제석할망 적시엔 흥영 그디 캐우령 제 지나민 곡석도 잘 되곡 하근거 흥곡 또 조가 막 무성흥영 안 되민 조팃디 강 부릉이 몬 뽐아그네 조왕에 오랑영 거꾸로 돌아매듬서, “조왕할마님 이거 봅서, 살아 지크나, 이거 우리 밭디 강 보나네 조도 몬딱 안돼고 황해지고 영한 난 좋게 해줍센” 옛날 어른 들이 경 꼴읍디다. 게난 옛날 어른들이 조팃디 가서 두 씨앗이두서 “우리 조 좋덴” 잘 안 곱드랍니다.

21)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22) 회충병

23) 색달리 김인자(여, 50세)

부엌에 조고고리 올려서 놔 놓고 우리 이추록 농사가 잘 안될시엔 조왕 할마님 조금 도워여줍서 경하는 거주게. 옛날 우리 시어머님 산 때, 예, 매 집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이 있다 그 말입주게. 혼 모술에 혼집이나 경하는 겁주. 옛날 막 미신 지키는 할망덜 경 해실 거우다.<sup>24)</sup>

## 七月

### 〈백중제〉

보름날 마소(牛馬)를 먹이는 일반 농가에서는 果實酒饌을 차리고 백중제를 지낸다. 전일에 미리 우마를 거두어 한 넓은 밭에 모여 가두어 둔다. 이 밭을 바령밭(牛馬糞田)이라 한다.

관에서도 馬祖壇에서 牛馬의 무병과 번식을 위하여 기원하는 祝을 올려 제사를 지낸다. 사찰에서도 백중제를 지낸다. 마늘이 잘 된다하여 百種 날은 마늘 심는 날로 정해져 있다.

다른날에도 한여름 물맞기를 즐기지만 특히 ‘백중물’이라 하여 이 날 물을 맞으면 허릿병과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婦女들은 다투어가며 물터에 나간다.<sup>25)</sup>

백중제 때 해난 말 꼴음서.

백중제 아무나 혼질 안 하고 몰모쉬 하영 하는 사람은 저 백중제 혼민 전원 칠월 열나흘날 백중제 혼영, 괴기도 놀 채, 밥 혼곡 해영 놀 채 아정 가곡 혼영 독잡앙 놀 채 아정 가곡, 괴기도 굽지 안 혼영 놀 채 아정 가곡, 경 해영 우리 아이 하르방네 하고 사난, 하르방네가 그거 저거 못해 가난 그날 아척은 곧밤 행 동그랑착에 거리곡 괴기농곡 행 아정 강 저 모쉬 돌아보곡 괴기구웁 먹곡 케우려동 먹영 오라 해신디. 말뺨 나가 전대반 아십주.<sup>26)</sup>

24) 색달리 강정옥(여, 82세)

25) 홍정표: 「耽羅歲時」, 1976년의 「濟州年鑑」, p. 368.

26)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강두방(남, 62세)

테우리코스는 쉼질루는 사람, 7월 백중에 밤해그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거 해나신디, 저 노픈 동산에 가그네, 옛날 동고랑이엔 혼 거, 대(竹)로 졸룬 거에 담양강, 동산에 강 아장 피기 혼나 혼고, 밥 행 캐우러 동 그디서 음복행 먹는 거, 건 뤼시엔 큰도 안 혼고 해나십주.<sup>27)</sup>

### 〈물맞이〉

백중날 물맞이랜 다녀났수가?

이디 바당에만 거주마는 저 '기신목' 베릿내 셋가름 아지방 산 때에 저 '알소' 알녀 팬이 'ㄱ래소', 다리 바로 앞에(옛날에 전신당 있었던 곳) ㄱ래소 아니면 기신목, 더위 식히고 유람도 혼고. 물 혼 방울만 똑똑 떨어지민 수전 우의 아정 영영 그래 아기들 안아그네 헛당 아기도 얼어가민 또로 나오라그네 벨리오랑 놀다그네, 그디 무신 거 아정 강 죽 썬 먹엇저 밥헛 먹엇저 해도, 우리 셋가름 아지방 돌안 간 아으덜 흰죽이나 썬 찻주. 두린 아기 돌양강 두린 아기 물맞히겐 혼은 오명 안혼곡 밥 잘 안먹으민, 무신 거 썬 아정 강 흰죽이라도 썬영 아기들 맥영 그날 강 그날 오랏주.<sup>28)</sup>

백중날, 처섯날 바당 ㄱ디 물떨어지는 덜로 가곡, 어디 산물 떨어지는 디, 이디 끝으민 천제연 폭포 님은 디, 다녀 낫수다.<sup>29)</sup>

## 八月

### 〈모듬벌초〉

8월 들면 초하루에서부터 추석 전날까지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한다. 특히 초하룻날은 묘제나 시제를 하는 웃대조의 묘소에 친족집단이 공동으로 벌초 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모듬벌초〉를 통하여 웃대조의 묘역을 벌초한 연후에, 초하루를 전후하여 벌초하기 시작하며 적어도 추석 전

27) 색달리 강정옥(여, 82세)

28)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29) 색달리 김춘일(여, 70세)

에 끝내는 것이 제주도의 별초하는 풍습이다. 별초는 대개 무덤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자손들이 많이 모여 하루에 끝내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2,3일씩 걸리는 수도 있어서 보통 지역별로 분담하여 별초를 하며, 모듬별초 때 남자들이 없는 집에서는 여자들이 대신 나오는 수도 있다. 한 가구당 1명씩, 의무는 아니지만 안 나오면 따돌림을 받으니 대개 한 명씩은 나온다. 그래서 문중에 따라서 상황은 각각인데 술이나 음식들을 가지고 모여들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 〈추석명절〉

차례를 지낸다. 오곡이 여물고 백과가 무르익어 不寒不暑한데 연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이다. 문헌에 보면, 이날 〈줄다리기(照里戲)〉, 〈독잡기놀이(捕鷄)〉 등 민속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중문마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속칭 〈베릿내오름〉 북동쪽 기슭에 ‘노는산’이란 곳이 있는데, 이 산은 대포 거주 원씨조상의 산소이다. 규모가 매우 큰 산으로 매년 추석날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차례를 지낸 후 처녀 총각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동네끼리 한데 어울려 여자들은 강강수월래, 남자들은 무릎싸움(독싸움)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새벽 닭이 울면 아쉬운 마음으로 동네별로 짝지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특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추석에 고향을 찾아 온 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추석날 저녁에 이 ‘노는산’으로 가면 틀림없이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곳으로, 예로부터 ‘달놀이동산’이라 하였다.

#### 〈팔월추석마불림제〉

중문리·색달리의 〈하리산당〉은 팔월 보름 집에서 명절 차례를 지낸 후, 차례를 지내기 전에 당신 뒀으로 제물을 준비해 두었다 당에 와서 앉은제로 당제를 한다. 이 때는 햅쌀을 올려 풍농을 감사하고, 신의 옷을 꺼내어 말리는 神衣淸掃祭로서 〈마불림제〉를 겸한다.

8월 마블립제엔 햅쌀을 올립니다. 옛날에는 감자, 보리를 주 농업으로 하였고, 축산은 밭위 열마리 정도 보통으로 했다. 마을이 적어서 크게 하지는 않았다.<sup>30)</sup>

九月

〈동백기름짜기〉

동백기름은 옛날에는 부인들의 머리기름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서 집집마다 동백기름을 짜다. 그것이 근래에는 위장병에 좋고 폐병에도 좋다고 해서 계속 동백기름을 조금씩 마시고 때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도 약재로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어 파는 사람이 있다. 살구씨 정도의 동백 열매를 따두었다가 음력 9월경에 기름틀에 넣고 짜다. 지금은 씨를 털어서 10여일 별에 말리고 그대로 내다 판다고 한다.

十月

〈마소의烙印〉

마을의 노인들은 자기들이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조랑말을 방목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도 다 기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마소들은 봄에는 털이 많이 빠지고, 여름에는 벌거지나 파리들이 많이 꿀기 때문에 보통 8월 이후 가을에烙印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10월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랑말의 방목이나 낙인 찍는 일들은 20-30년 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

烙印의 종류에는 국마에만 찍는 ‘山’자 낙인을 비롯하여 ‘生’ ‘日’ ‘구’ ‘井’ ‘土’ ‘由’자의 낙인이 있었다. 낙인을 찍는 날은 보통 ‘申日’과 ‘寅日’이다. 장소는 적당한 곳을 택하지만 주로 ‘장동’에서 행해진다. 또한 이 낙인을 찍을 때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미녕(무명)을 20자만 내면 된다. 그리고 그 낙인의 방향은 주인이 정한다. 그래서 그 찍힌 낙인이나 형태를

30) 색달리 강정옥(여, 82세)



보고 자기의 우마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톨 녀착귀 께어서라!” (타는 쪽-왼쪽-귀가 찢렸더라)

“채질녀귀 께어서라!” (채찍질하는 쪽-오른쪽-귀가 찢렸더라)라는 말이다.<sup>31)</sup>

## 十一月

### 〈장담기〉

‘星川洞(베릿내)’의 할머니들은 보통 10월에 메주를 쑤고, 11월에 장을 담근다. 메주를 10월 그믐께에 쑤고 한달만 되면 다 마르고, 11월 보름이 넘으면 담는데 12월 까지도 담지만 정월에 담는 법은 없다고 한다. 장을 담을 때는 쇠날 뱀날은 뜨지 않는다고 해서 피하고 돼지날, 몰날(牛日), 독날(酉日), 개날에 담는다고 한다.<sup>32)</sup>

## 十二

### 〈신구간〉

大寒 後 5일에서 立春 前 3일 까지를 ‘신구간(新舊間)’이라 한다. 이때는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수호·관장하던 神들이 한해의 임무를 다하고, 옥황상제에게 새해의 책임을 맡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버린 神들의 不在 期間이다. 이때는 年運이 불길하거나 吉日이 없어 채 이루지 못하였던 建築·修理·면례(緘禮)·移徙 등 생활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날을 가리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집안의 모든 神, 심지어는 廁間(=변소)의 神까지 지상에 없기 때문에, 변소를 고친다 하여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는 특히 신구간을 꼭 지키는 풍습이 있어, 이 때는 ‘이사하는 철’이 되고 있다. 천기대요(天機大要) 세관교승조(歲官交承條)에 따르면, “대한

31) 제대 국어국문학과, 「중문리 마을조사」, 앞의 책, p. 90.

32) 장주근; 「성천포의 세풍속」 『베릿내 학술조사보고서』, p. 85.

후 5일에서부터 입춘 전 2일은 신구세관(新舊歲官)이 뒤바뀌는 때이다. 먼저 선조의 신주를 길 한쪽으로 내어 모신다. 다만 날을 잘 가려서 출운하여 상극을 입음과 여러가지 흉상을 꺼리지 말고 기조(起造) 장매를 마음대로 하여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다.<sup>33)</sup>

〈입춘(새철 드는 날)〉

濟州島의 민속으로 입춘날은 ‘새 철 드는 날’이라고 해서 여인이 남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입춘날에 남의 집에 찾아가면 그 집에는 그 해 농사에 ‘잡초(김)가 무성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날은 여인들의 몸가짐에 더욱 조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인이라 하더라도 음모(陰毛)가 없는 여인이면 상관없다고 하나, 성인치고 음모 없는 여인도 드물 것이기에 어느 집에 그 해 밭농사에 잡초가 무성했다면, “금년 새철 드는 날에 아무 예편(여인)이 왔다 갔는데, 그 예편 알 짓은 예편이었는가”하고 뇌까리기도 한다. 그리고 또 입춘날에는 수염이 있는 이가 남의 집에 찾아가도 그 집에는 여름 농사에 김이 무성하게 된다고 하고, 또 이 새철 드는 날에 털짐승이 집안에 날아 들어와도 “그해 용시(농사)에 김질 짓나”고 한다. 또 “새철 드는 날 반물치매 입은 예편을 보민 액운이 닥친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 여인들은 이날 만은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철 드는 날 상제 만나면 그 해 운이 대통한다”고도 하여 이 날에 상주를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기분 좋게 생각하기도 한다.<sup>34)</sup>

‘새 철 드는 날’은 農事의 歲時로 보아 ‘봄을 준비하는 날’이며, 1년의 농사를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춘굿놀이〉는 관민이 합동으로 치르어, 새해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던 ‘풍농굿’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33) 오문복; 『豊川略史』, (풍천국민학교, 1987), p. 77.

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新舊歲官交會立祭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34) 전성기; 『남국의 민속』 (교학사, 1980), p. 82.

(2) 衣·食·住

가. 의복

정월명절옷 ..... 솜옷 (면화로 해서 속에 솜을 넣은 옷)

한식명절옷 ..... 접옷 (안하고 겹하고 솜만 놓지 않은 옷)

단오명절옷 ..... 홑옷 (중의적삼)

팔월명절옷 ..... 홑옷 (중의적삼)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는 1년에 네 번 바느질로 옷을 하여 입혔다. 옷감이 나 의복이 상품화 되기 이전의 일이다. 집집마다 누에치기와 목화, 삼을 재배하여 명주, 무명,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농사일을 할 때 간편한 일옷으로 갈중이(갈옷)을 만들어 입었다. 비옷으로는 우장을 만들어 입었으며, 명주옷은 고급옷으로 예복이나 나들이옷으로 입었으며,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사지옷(털옷) 양단 등이 있었으나 특수층에 한정돼 있었고 신발도 일제 말엽 고무신이 보급되었지만 극히 한정된 상태이며 가죽신, 짚신, 나막신 등을 손수 만들어 신었다.

맹질옷은 어떻 맨들앙 입혔수가?

아이네만씩 것사게. 아이고, 우리 큰 놈 열두 술 난 해, 이젠 무주로 창옷 안 입어도 한영 입저사. 두루마기 입저싱가. 아기 창옷. 열 술 응답 술 나가민, 스나인 창옷 행 입저서. 옛날사게 조복틀 이신 사람도 하지 안한 매. 이덕냥으로 몬따. 아이고, 한식 맹질엔 접옷해영 입고, 오월 맹질은 중의적삼 해영 입고, 팔월 맹질 중의적삼 한곡계. 정월 맹질은 소개옷, 멘화 행 소개 논 거.<sup>35)</sup>

나. 음식

중문 마을의 주요 작물은 벼, 보리, 조, 고구마 등이다. 농사를 지어 식량은 자급자족할 수 있었지만,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영농방법도

35)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전근대적이었으며 사용하는 농기구도 ‘따비’ ‘쟁기’ ‘쇠스랑’ 등이었고 운반 수단도 인력이나 축력(牛馬車)이 고작이었고, 곡식을 도정, 제분하는 방법도 남방아, 연자방아(물 2래)와 맷돌을 굴러 작업했으며 곡식 수확량도 미미하여 매년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봄이면 춘궁기 즉 보리고개의 곤경을 면치 못하였다.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은 어떤 것이 이섯수가?

미벌도 낫당 해먹고, 보리 햇당 먹고, 조 햇당 먹꼭 허민, 여름엔 맨 보리밥 해먹으면 저슬들민 좁쌀도 농곡 미벌도 허곡, 콩 갈앗당 콩도 2래에 쫄아그네 죽쉬먹고, 저슬들민 경허고, 여름엔 게나 제나 방애에 보리정 것보리 요만씩 허 거 것보리 저그네 먹고, 아이고 개역도 쫄앙 손으로 2래에 쫄민 2래 또끄망으로 난 거영 좁아먹으멍 쫄아서. 어느저래 그래 소뭇 둔 거 놓고 하간 거 허지 안허영 2래에 아장 2래 쫄멍, 놀애 허멍 2래 쫄앙 우리 소래해가문 동녘의 하르방은 저 년 강 굴래 모사볼라. (웃음)<sup>36)</sup>

### Ⅲ. 信仰과 儀禮

#### 1. 유교식 마을제

儒敎式 마을제인 〈醮祭〉는 마을의 自治와 관련된 政治的 集會의 성격이 강하다.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등을 빌고 집안마다 무사하길 비는 〈祝文〉으로 보아 堂信仰의 變形임을 알 수 있다. 심방이 굿으로 하는 儀禮가 祭官을 선출하여 釋奠祭의 의전 절차에 따라 神에게 소망하는 축문을 읽는 祭祀로 변한 것이다. 祭祀는 地緣·血緣의 共同體를 유지하며, 마을 집단 姓氏 간의 세력을 조절하는 구실도 하였다.

36)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1) 里社祭(醮祭)

〈표3〉 里社祭 또는 醮祭

마을명	제사명	신명(신위)	제 일	희 생	제 관 수	戒日
중문리	포 제	醮神之位	6월 或丁或亥	돼지 1마리	14명	3일 정성
대포리	농포제	里社之神	6월 或丁或亥	돼지 1마리	16명(예1)	3일 정성
색달리	포 제	醮神之位	6월 或丁或亥	돼지 1마리	14명	3일 정성

가. 중문리 醮祭

중문리·색달리·대포리는 지금은 포제를 지내지 않는다. 거의 새마을운동 당시 포제는 없어졌다. 특히 중문리는 4-50년 전부터 포제를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의 증언을 통해 중문동 포제를 살펴 본다.

1) 祭儀管理…… 祭日이 가까워 오면 마을 유지들이 모여서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제관을 선출한다. 모든 祭儀의 관리는 그 때 선출된 제관들에 의한다.

2) 祭日…… 祭日은 6월 初丁日로 한다. 祭는 전날 子時에 시작 다음날(初丁日)을 맞는 後日祭로 한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제를 지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연기할 수도 있다.

3) 祭物…… 제물은 犧牲 돼지 한 마리, 그리고 메, 닭, 생선, 고사리, 청각채, 미나리, 옥수수의 이삭 등을 올리는데, 곡식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날 것으로 올리고, 육류는 수컷만을 사용해야 한다. 술 대신에 甘酒를 쓴다.

4) 飲福…… 주로 제관과 마을 유지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때는 남자들만이 참석하며, 제가 끝난 뒤에는 역시 제관과 마을 유지에게만 出盤(제물을 분배하는 일)한다.

5) 準備…… 제관과 제일이 정해지면 마을에서는 ‘화연제’라고 해서 각 집마다 쌀 한 되를 거둬 포제 경비를 마련하였다.

나. 대포리 포제

우리 마을 포제는 훈 20년 전에 없어졌는데, 수옥이 이장 당시, 그 사

름이 42세에 이장헌연에 포제 앞으론 안하쿠댄 헌명 축임고 헌명 했는디, 그 사름이 예순 돌이거든. 거니 만 20년 전의 포제가 어서저십주. 우리는 유월 포제를 지냈는데, 포제를 지낼라고 헌머는 부락 회의를 해서 제관을 뽑조. 유월 흑정흑해일에 제는 지내는데, 포제상회는 혼 2-3주 전의 해 가지고 어느 날로 제사를 혼다 통보를 하지요 제관은 15명, 15명 헌머는 꼭 맞아집니다. 16명인가 되지요. 예비제관까지 헌머는. 경비는 그 당시 부락에서 모였조. 걸보리 혼 말 내머는 부락 소사 품주곡 포제 지나고,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조. 회생은 돼야지 한마리 헌고, 신은 이사지 신이엔 홉주. 축문은 계속 이어지질 안하고, 그 해 상황에따라 조축을 홉니다. 그 해 상황에 따라 조축을 하는데 비가 아니 오머는 비가 옴센 혼다든지, 가령 6·25사변에 군인들 많이 가머는 우리 부락에서 출정혼 장병이 많이 갔으니까 무훈장훈을 빅니다 혼는 것을 축에도 놓고, 요새에 지난다머는 대포리 주 농스가 밀감이니까 밀감을 유물게 해줍서 혼는 축을, 계니까 고정적 축이 아니라 해해마다 문구가 들어가고 빼지고 하지요. 제관들이 입소헌머는 3일 정성으로 제를 지내는데, 전날 즈시에 가서 새날 들어 1시쯤 혼는 후일제로 홉니다. 그러니까 정일까지 헌머는 나흘 걸리조. 즈시, 새로 혼시 넘어사 제를 혼니까.<sup>37)</sup>

## (2) 공동묘지 토신제

각 마을 포제는 없어졌지만, 공동묘지 토신제는 지금도 하고 있다. 마을의 里有地로 공동묘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월 초정일에 종합 토신제를 지내는 것이다. 그 해에 사람이 죽으면 장지에 가서 개인별로 山祭(土神祭)를 지내기가 번거롭다. 때문에 마을에서 정월에 전 부락민의 제사로 〈공동묘지 토신제〉를 지냄으로써, 마을에 나서 마을에서 죽는 자연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포제는 없어졌지만, 묘지를 공동으로 소유 운영함으로써 마을제의 기능

37) 대포리 이상봉(남, 72세)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포제가 없어진 다음에 마을 공동묘지에서 정월에 토신제를 마을제처럼 지낸다는데 마을 공동묘지 토신제는 어떻게 지냅니까?

제관은 각성반이 1인 나오라. 나오되 미참호 사람은 불참된거라. 각성 1인을 기준으로 한되 요새는 반에 대개, 9개반이니까 한 반에 한 사람해서 9인 정도로 제관을 정합니다. 3헌관하고 집례 대축 이하 집사를 두지요. 제물은 돼지 희생을 생으로 올립니다. 제물은 초헌관 재량에 의해가지고 매를 두 가지로 합니다. 조메 두 개, 백메 두개. 제물은 포제에 준하지요. 공동묘지에 개인 산제가 있지 안합니다. 그게 번거로우니까 우리 도제(都祭=마을제)로 지내자. 그래서 지금 돼지도 생식, 제사 명칭은 〈마을 공동묘지 토신제〉<sup>38)</sup>라 하지요

## 2. 무속 당굿

濟州島의 전통 마을은 해마다 정초에 儒敎式 마을제인 〈포제〉와 무속적인 마을제인 〈당굿〉을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기적인 歲時風俗은 마을공동체의 확고한 결속과 유지를 위하여 면면히 계승하여 온 共同體의 信仰으로 도민의 生活文化를 이루어 온 뿌리이다. 특히 室은 신앙집단으로서 여성 단골이 모이는 곳이며, 단골은 상·중·하단골로 이루어져 있다. 당에는 “당배 신배를 매고 있는” ‘당 맨 심방(=世襲巫)’이 있어, 당굿을 하여 本鄉堂神을 청하고, 그해의 평안과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다. 室信仰은 신앙민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큰 신앙공동체 조직이면서 동시에 生業守護神格인 神들의 직능에 따른 생산공동체 조직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 왔던 것이다.

38) 대포리 노인회장 이상봉(남, 72세)

## (1) 대포리

대포리 본향은 어디우짜?

‘콧등이마루’ 헌디 모셨주. 옛날 불목당 헌단에 그딘 멀고 시국이 덧겨 지난, 그레 댕김이 불펜 헌난, 저 ‘콧등이마루’ 오란에 우으 쟈 우넉펜인 본향헌연 모시곡, 또로 가운데 이제 중산헌연 토산당헌연 모시곡, 가운데 일뵈에 헌디 댕기는디, 알당은 유드레엔 하는 어른, 저 호근이서 온 어른만 댕겨. 모딱 댕기질 안 하고, 호근이서 온 어른만 댕기는디, 맨 알력 팬이주게. 게난 옛날은 유드렛날 다니는 유드렛당이엔 해그네 유드렛날 댕기단, 이젠 사름들이 모두 욱고, 춤 시상이 데짜지난 일뵈에 문딱 헌디 출령 가. 일뵈에 모딱 삼본향을 구덕에 이만은 담아 놔 가난, 옛날은 떡하고 밥하고 헌였주. 떡하고 밥하고 헌영, 쌀도 영 하나씩 죄여 난 가단, 이젠 경 안헌여.

메는 몇 그릇 가정 갑니까?

큰 멘 사발에 꺼 두개 하고, 또로 보시에 꺼 세개 하고, 보시도 혼 밧디 두개씩 헌영 본향에도 두 개, 토산당에도 두 개, 유드레에도 두 개, 경 밥도 두 사발씩 하고.

중문이 어른덜은 불목당 그디서 햐주마는, 시국이 영 뵈싸지고 헌난, 그디 간 초상 모사난 돌, 그 당에 댕기는 어른덜이 배개만 혼 요만 혼 돌 꺾 단에 그 우트레 모산에 댕점주. 옛날은 저 불목당만 댕기단.

당 맨 무당은 옛날 고덕이엔 혼 어른 살았주. 그 다음은 그럭 저럭 헌 단 하원 할망이엔 혼 거, 저 본향 초지 혼 할망은 알동네 고덕이엔 혼 이고. 하원할망, 현재길기 각시. 현의원 각시엔 헌여. 현의원 각시엔 혼 예청은 헌단에 죽어불고. 모딱 죽언 원 아무도 어서.

당에 강 빌민 얘기가 빌민 낫냥 했자 외방이나 가민해도 이 모슬엔 바당에 지드러렌 기주게. 당은 어서도 ‘대시비기’엔 혼 다. ‘대시비기’엔 혼질 안하고 ‘자장코지’엔 혼 디 강 지드러매.<sup>39)</sup>

39) 대포리 황보 옥(여, 95세)



〈표4〉 대포리의 신당

〈큰개물어부당〉

室名	큰개물 해신당(어부당)	神名	해신, 선왕
神位	1위	祭日	초하루·보름
神體	神木	祭物	메 4 그릇(배: 3기, 당: 1기)
性別	男神	機能	풍어·어부, 어선 수호
당건조형태	神木型·祭壇型·石垣型·海邊存在型		
매인심방계보	없음		
당의 특징	어부들만 다닌다. 매달 1, 15일 당에 가며, 배고사 전에도 당에 간다.		
단골(信仰民)	대포리 어부들	提報者	황보옥(여, 95세), 강두방(62세)

〈자장코지 해너 당〉

室名	자장코지 해너당	神名	개당할망
神位	1위	祭日	택일
神體	神木(똥낭)	祭物	메 1그릇
性別	女神	機能	해너 수호
당건조형태	神木型·岩石上存型·紙錢物色型		
매인심방계보	없음		
당의 특징	요왕제를 하고 지드리는 당		
단골(信仰民)	대포리 해너	提報者	황보옥(여, 95세)

〈콧등이마루 웃당〉

室名	콧등이마루 웃당(상단)	神名	대포본향(불목당 요왕또)
神位	1위	祭日	6월, 11월 17일, 또는 매7일
神體	神木	祭物	메3~4(사팔메 1~2, 보시메 2)
性別	女神	機能	생산·물고·호적·장적
당건조형태	神木型·祭壇型·紙錢物色型·畚間存在型·동산형		
매인심방계보	고씨→현의원→... 없음		
당의 특징	상단: 대포 본향→중문 불목당에서 가지갈라 온(중산하여 온)당		
단골(信仰民)	대포리 주민	提報者	김화홍(78세), 황보옥(95세)

## 〈콧등이므루 셋당〉

堂名	콧등이므루셋당(중단)	神名	토산 동의본향(일뫼할망)
神位	1위	祭日	6월, 11월 열일뫼
神體	神木	祭物	사발메 2, 보시메 2
性別	女神	機能	산육·치병
당건조형태	神木型·祭壇型·紙錢物色型·石垣型·畚間存在型·동산형		
매인심방계보	고씨→현의원(하원심방)→… 없음		
당의 특징	중단→토산 동의본향 웃당 일뫼할망을 중산하여 온 당		
단골(信仰民)	대포리 주민 일부	提報者	황보 옥(여, 95세)

## 〈콧등이므루 알당〉

堂名	콧등이므루 알당(하단)	神名	호근이므루 여드렛당
神位	1위	祭日	6월, 11월 17일(매8일)
神體	神石	祭物	사발메: 2그릇, 보시메: 2그릇
性別	女神	機能	산육·치병
당건조형태	神石型·紙錢物色型·神木型·畚間存在型·동산형		
매인심방계보	고씨→현의원(하원심방)→… 없음		
당의 특징	하단→호근이므루 여드렛당을 중산하여 온 당		
단골(信仰民)	대포리 주민 일부	提報者	황보 옥(여, 95세)

## (2) 색달리

색달본향 하리산당 상단골 상가지는 김해 김씨, 중단골은 경주 김씨이며, 제일은 정월 초하루 과세문안, 팔월 보름에 마풀림제를 지냅니다. 당에 인형을 모셨으나 지금은 엇고, 형겁(지전물색)도 된 술아부런 엇수다. 당에 가센 호민 옛날은 풀적거리(물색) 닳은 거 호영 강 걸어났수다. 당을 맨 심방은 지금 중문이에 삽네다. 아방이 죽어부나네 메뉴리가 당에 다닙니다. 강기길이가 매다네 강창언이, 강창언이 메뉴리. 당본초는 마을을

설립한여 은 오로콤 짐호장이엔 하고, 이 밋을 본초 홀 때, 한집 청해들  
이젠 한민 짐호장으로도 청해 들이고, 또 당 설립한 건 강동지엔 한던가.  
색달이는 본향이 새어분 따분에 양, 생산·물고·장적·호적 츠지하고 도야  
지괴긴 올리지 않주마는 당에 가젠 한민 일주일은 못해도 3일 정성은 해삼  
주게. 3일 정성만 한민 천제도 한댄 하는 걸, 3일 정성은 해사주기. 8월  
마블림제엔 햅쌀을 올립니다.<sup>40)</sup>

색달본향은 이 당하고 (하르방당) 관광단지로 들어가부난게, 할망당이  
전신당인디, 배릿내 사람들이 가져가 부러십주. 배릿내 사람들은 색달리민  
이영 ㄱ찌 전신당을 모십주게. 색달 본향 하르방 당에 갈 때에는 메 1그  
룻, 사발메 1그룻, 보시메 1그룻(당에 부름씨 하는 할망 몫이다). 제숙 1  
마리, 보시썰 1그룻, 자치 3-4자의 물색(붉은색·노란색·흰색)을 가지고  
잡니다. “한어시 색당은 아니우다.”<sup>41)</sup>

#### <색달리 전신당>

군인이 당을 어시대갓단 직스했수게. 그 당이 초가집이난, 당을 낭서리 빼  
불고 한난, 이젠 스투트 집으로 좋게 지섯수다미는, 경한난 군인이 두명인  
가, 세명인가 이디서 군인덜 이디 온 때, 4·3사건 아주 후젠디. 경한난 그루  
후제 법에서도 안 막고 내부난에 믿는 사람들 메를 안 해가고, 법당 믿는 사람  
덜은 정월 초하룻날, 팔월 보름날, 경행 밥 한 사발 한곡 보시메 하나, 사  
발 메 하나 한곡 돈은 2천-5천, 만원-건 단골 맨 심방이 가져가는 거.

금년은 산긋, 보통 아진제로 하고, 열명 받고, 제비 줌고 산방알 누게 좋다  
긋다이 밋을 액이 들어오람다, 금년엔 좋게 나감다.

그 전엔 상곡석이엔 한 거 나룩입주. 그 전엔 상곡석이 좋다, 중곡석(조,  
보리)이 좋나 영 했는디, 요즈음은 경안 쫓고, 심방 말미로 경 쫓아십주.

40) 색달리 강정옥(여, 82세)

41) 색달리 김인자(여, 50세)

상단골부터 제비 좁아 뇌사 그 다음엔 중단골 하곡. 요즈음은 상단골, 중단골 벨로 한 험수다. 기문 가는대로 들어 간 초래대로 메도 올리곡 제비도 잡아주곡. 경해도 아맹해도 김해 김침이가 상단골이나네. 김해 김침이 제일 많음주. 아마도 당설립해 난 생이라. 당에 강 빌민, 농수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사고도 나지말게 하고, 밀감도 잘 되고, 아기도 잘 키우곡 경흠센 비는 겁주게. 비는 게 별게 잇수과?<sup>42)</sup>

〈표5〉 색달리의 신당

〈색달하리산당〉

堂名	당동산 하리산당(색달본향)	神名	당동산 하리백관도
神位	1위	祭日	정월초하루, 팔월보름
神體	位牌(人形)	祭物	메 사발1, 보시1, 해쌀, 물색
性別	男神	機能	생산, 물고, 호적, 장적
당건조형태	堂宇型·位牌型·祭壇型·畚間存在型·동산형		
매인심방계보	강기길→강창언→자부 김씨 (일선이 아지망)		
당의 특징	8월 마불림제에는 햅쌀을 한 보시 가지고 간다. 물색(풀찍거리)마련		
단골(信仰民)	김해김씨상단, 경주김씨중단	提報者	강정옥(여, 82세)

〈전신당〉

堂名	전신당(비바리당, 처녀당)	神名	개당할당, 별금상뜨님애기
神位	1위	祭日	초하루, 보름
神體	神穴	祭物	잔치·초상후 돼지머리, 물색
性別	女神	機能	풍우신, 어선차지
당건조형태	神穴型(궤형)·祭壇型·海邊存在型·紙錄物色型		
매인심방계보	강기길→강창언→子婦 김씨 (일선이 아지망)		
당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이 전신당의 나무를 잘랐다가 동티로 죽었다.		
단골(信仰民)	색달, 배랏내 어부·김수	提報者	강정옥(여, 82세)

42) 색달리 허신권(여, 86세)

## (3) 중문리

〈드람지께당〉은 마을의 호적을 차지한 〈굴목당〉<sup>43)</sup>과 함께 중문리 분향당으로 큰당이라고 한다. 〈굴목당〉 또는 〈불목당〉은 드람지께당의 子婦神 ‘요왕또’를 모신 당으로 祭日은 유월 초사흘, 초이레, 열 사흘, 열 이레, 스무 사흘, 스무 이레로 한달에 여섯번씩 태일하여 다니는 이렛당이다. 반면에 〈드람지께당〉은 정월 보름의 〈신과세제〉를 ‘산굿’으로 하고, 팔월 보름의 〈마불림제〉는 ‘앉은제’로 올린다. 정월 대보름날의 산굿은 심방이 3-4명의 소무(악사)를 데리고 서서하는 규모가 큰 곳이며, 堂神이 밥도 장군, 힘도 장군인 將帥이므로 분향당신을 청하여, 마을의 도액을 막고, 마을의 화재를 막고, 굴의 수확과 나락(벼)의 수확을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마을굿이다. 앉은제는 추석 명절이 끝난 뒤 신앙민들이 모여 제단에 제물을 차려 놓으면, 심방은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간단하게 제를 드린다. 이祭는 단골신앙민들의 산을 받아 신수를 점치고 액을 막는 추수감사를 겸한 의례이다. 이 때는 굴 밖에 있는 작은 슬레이트집에서 神의 옷들을 꺼내에 마(곰팡이)를 불린다(말린다). ‘마를 불린다’는 뜻의 〈마불림제〉는 神衣淸掃祭이기도 하다. 습기에 찬 신의 옷들을 말리고, 마을의 실존 祖上인 당신에게 가을 햅곡식을 거두어들인 감사의 제를 드리는 것이다.

〈드람지께당〉의 의례를 담당한 매인심방(세습무)은 고옥순(여, 65세)이다. 고씨 이전에는 이씨, 그 이전에는 강씨가 당을 메고 있었다 한다. 고씨 심방은 이렇게 말했다. “귀신은 다 연유가 있고, 본초가 있는데, 엉터리로 본을 풀면 안됩니다. 여기 본초(堂神話)는 아주 썩습니다. 분향이 세니, 당에 가는 날은 굿은 날, 좋은 날 가리지 않고 당에 갑니다. 비가 왔거나 눈이 왔거나 마을에 사람이 죽어도 당에 갑니다.” 마을에 똥이 나도 祭日을 연기하지 못하는 센당, 신의 영험이 무서운 당이라 했다.

43) 〈굴목당〉은 〈불목당〉을 말한다. 중문리 여무 고옥순씨에 의하면, 굴무기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표7〉 중문리의 신당

〈드람지케당〉

堂名	드람지케당	神名	중문이하르산
神位	4위	祭日	정월15일(산굿), 8월 15일
神體	神穴·神木·神衣	祭物	사발매 2, 보시매 2, 관복
性別	夫婦神	機能	생산·물고·호적·장적
당건조형태	神穴型(洞窟型)·祭壇型·川邊存在型·神木型·神衣保管型·紙錢物色型		
매인심방계보	오씨→홍씨→현씨→강씨→강씨말→이씨→고씨(고옥순)		
당의 특징	정월에 산굿, 팔월에 앉은제를 한다. 당에 갈 때 관복1벌, 어복3벌		
단골(信仰民)	임씨, 이씨 상단궐	提報者	심방 고옥순(여우, 63세)

〈불목당〉

堂名	불목당	神名	요왕국 말갯돌애기
神位	1위	祭日	6월 11월 7, 17, 27일
神體	神木(녹낭, 불래낭, 굴목)	祭物	매 1그릇
性別	女神	機能	넋들임, 경증의 치병신
당건조형태	神木型·紙錢物色型·樹林內在型·祭壇型		
매인심방계보	오씨→홍씨→현씨→강씨→강씨말→이씨→고씨(高玉順)		
당의 특징	당에 굴목낭이 있다. 호적본향. 굴목당→불목당→불목당		
단골(信仰民)	임씨, 이씨 상단궐	提報者	高玉順(여우, 63세)

〈토산일뤼당〉

堂名	동의본향(웃당)일뤼당	神名	일뤼한집
神位	1위	祭日	매 일뤼 택일
神體	神木	祭物	매 2그릇
性別	女神	機能	산육·치병
당건조형태	神木型·祭壇型·紙錢物色型·石垣型·畝間存在型		
매인심방계보	오씨→홍씨→현씨→강씨→강씨말→이씨→고씨(高玉順)		
당의 특징	'동서마을' 왼쪽 길가에 있다.		
단골(信仰民)	마을 사람 일부	提報者	高玉順(여우, 63세)

〈토산유드렛당〉

堂名	동의본향(알당)유드렛당	神名	유드레한집
神位	1위	祭日	매 여드레 택일
神體	神木(불래낭)	祭物	메 2그릇
性別	女神	機能	치병(피부병)
당건조형태	神木型·紙錢物色型·海邊存在型·동산형(斷崖型)		
매인심방계보	오씨→홍씨→현씨→강씨→강씨딸→이씨→고씨		
당의 특징	'베릿내' 동쪽 해변 언덕 불래낭 있는 곳, 일당 유드레 싱거물 본향		
단골(信仰民)	마을 사람 20여호	提報者	高玉順(여무, 63세)

〈베릿내개당〉

堂名	베릿내 개당(해신당)	神名	요왕국 벨금상뜨님애기
神位	1위	祭日	택일
神體	神穴	祭物	돼지뼈
性別	女神	機能	일만잠수 일만어부
당건조형태	神穴型·祭壇型·紙錢物色型·海邊存在型		
매인심방계보	없음		
당의 특징	돼지머리를 고기는 먹고 뼈는 갖다 바친다.		
단골(信仰民)	색달리·성천동(베릿내)주민	提報者	